주장자따라…

⑲ 달라이 라마의 '윤회론'

조태호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 종파인 겔루크파의 법왕이다. 현재 다람살라 망명정부를 이끄는 14대 달라이 라마는 텐진 가쵸.

네티즌 교리문답

'∴'의 명칭과 의미는?

문 사찰의 벽에 간혹 점셋(∴)의 표시가 있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ID '학생')

답1 : 솥의 세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말하기도 하지요. 탐진치(貪瞋痴) 삼독심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요, 궁극적으로는 마음 심(心)으로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ID '心')

답2 : 이것은 탄허 스님의 논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西域의 圓伊字三点', 이것은 '종(縱) 횡(橫) 병(幷) 별(別)을 也(또) 難分(나누기 어려움)' 이라 하여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도(道)는 종도 아니요 횡도 아니요 3점이 붙은 병(幷)도 아니요 3점이 떨어져 있는 별(別)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곧 언어도단(言語道斷)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는 도체(道體)를 그려 보인 것이다. (ID '조조')

답3 :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자삼점(伊字三點) 문은 점 세개가 삼각형을 이루며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를 상징한다. 이 문양은 만(卍)자와 더불어 불교를 상징하며 일즉삼(一卽三), 불일불이(不一不二), 비전비후(非前非後) 등의 뜻을 담기도 한다. (ID '서울시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㊸

교외별전(敎外別傳)- 3

선사들의 어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의 문헌에서, 또 지금 살아있는 선사들의 설법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다. 앞의 글에서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心爲萬法之根本)이라고 한 <마조록(馬祖錄)>의 한 대목을 인용했듯이, 선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곧 만법의 근본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킨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선종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다. <화엄경(華嚴經)>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一切唯心造)이라 하고 또한 '이 세상은 허망하며 다만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三界虛妄但是心作)이라고 한 것이나, <대승기신론>에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이 생기고 마음이 스러지면 모든 것이 다 스러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고 한 것도 다 같은 취지이다.

마음은 우주 만법의 근본

'법'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그런 얘기들이 왜 다 같은 취지인가를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잠깐 법(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풀이하고 얘기를 이어야 하겠다. 법이라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헌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등일 터이고, 나아가 자연법칙이라든가 인간사의 이치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그런데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이라는 개념은 인도 말 다르마(dharma)를 번역한 말이어서 좀 독특한 뜻을 담고 있다. 다르마라는 말은 워낙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에서 그 말을 중요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몇 가지 중요한 뜻을 짚어보자면, 다르마는 우선 올바른 행위를 뜻한다. 인도의 유명한 옛 서사시 <마하바라타>라든가 <라마야나> 같은 데에서는 대개 그런 뜻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여기에서 올바른 행위란 각 존재가 해야 할 일, 의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르마는 또한 가르침을 뜻한다. 불교의 삼보(三寶) 중에 법보(法寶)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런 용례이다. 그래서 삼귀의례(三歸儀禮)의 두 번째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 뜻의 연장선상에서 다르마는 또한 불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뜻도 가진다. 그리고 다르마의 또 하나 중요한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불법(佛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친 진리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다르마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또 한편으로 온갖 개별적인 존재와 현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삼법인(三法印) 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 하면 모든 것이 무아라는 뜻인 것이 그 한 예이다.

다르마의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두고, 그저 우연히 그런 서로 다른 뜻이 하나의 말에 가서 붙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서로 연관되어 다르마, 즉 법이라는 말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성인의 가르침은 궁극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인 진리는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와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며, 각각의 존재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제 할 바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마음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또 과연 무슨 뜻인가?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9>

미륵보살의 법문(1)

미륵보살 출현은 대자비의 본질 강조

보리심 갖고 정진하면 한 생애에 성불

선재동자가 미륵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내용은 매우 길어서 <입법계품>의 사분의 일이나 되는 분량이다. 바로 앞의 선지식인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는 '환술처럼 머무름(幻住)'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 법문을 설하고 나서, 남쪽 해안(海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장엄 동산이 있고, 그 안에 비로자나장엄장(毘盧遮那莊嚴藏)이라는 광대한 누각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에 미륵보살마하살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선재동자에게 권했다.

미륵보살은 보살의 수행을 거의 다 완성해 다음 생에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가 될 일생보처(一生補處)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방문만을 남겨두고 있는 선재동자 구법여행의 종반부의 선지식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륵은 범어 '마이트레야(Mitreya)'를 음역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자비롭다'이다. 그러므로 중국어 이름으로 '자씨(慈化)'라 한다. 이것은 미륵보살이 자비로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가 사는 나라의 이름이 해안(海岸)인 것은 이미 부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서 생사의 바다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머무르고 있는 동산의 이름이 '커다란 동산(大莊嚴)'인 것은 보살 만행(萬行)을 통해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덕을 이미 다 갖춘 것을 나타낸다. 그 동산 속에 있는 광대한 누각의 이름이 비로자나장엄장인 것은 한량없는 지혜가 밝게 빛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지혜로써 모든 만행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는 이러한 장엄은 "보살의 선근의 과보와 서원력(誓願力)과 교묘한 방편으로 생긴 것으로서, 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대비심으로써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경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장엄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선지식으로서 미륵보살을 들고 있는 것이다.

부사의해탈과 대비심은 바로 입법계품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근본사상이다. 여기에서 미륵보살이 선지식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선지식의 여러 가지 해탈 법문을 집결함과 동시에 보살행이 궁극적으로 대자비를 본질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초의 문수보살에 의해 부사의해탈의 문이 열린 이대로 문수보살의 지혜가 보살행을 수행케 해서 마침내 미륵보살의 대비(大悲)를 일으키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륵보살의 출현에 의해서 선지식 사상은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로부터 미륵보살을 찾아가라는 가르침을 듣고 해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비로자나장엄장 누각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깊고 광대한 신해심(信解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 누각의 훌륭한 장엄을 관함으로써 그곳에 머무는 미륵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의 공덕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깊이 느끼고 그것을 찬양하는 장편의 게송을 읊으면서 일심으로 미륵보살을 뵙고 공양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누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누각 밖의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다. 선재동자를 살펴본 미륵보살은 대중에게 그의 덕을 찬탄하는 게송을 설하고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착하도다. 참된 불자여, 감관을 잘 다스려서 게으르지 않으니 오래지 않아서 모든 공덕을 구족하여 나의 몸이나 문수보살과 같이 될 것이다"라며 그를 격려했다. 이때 선재동자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자, 미륵보살은 먼저 도량에 모인 대중들에게 선재동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장자의 아들은 지난날 복성(福城)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점점 남쪽으로 오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백 열 선지식을 만난 뒤에 내게 왔는데 잠깐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았다. …보리심을 내고 쉬지 아니했고, 대승의 길을 구하며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 어지신 이들이여, 다른 보살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내고야 비로소 보살의 원과 행을 만족케 하며 능히 부처님의 보리에 친근하는 것이거늘 이 장자의 아들은 한평생 동안에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로써 법계에 깊이 들어가고 모든 바라밀다를 성취하고 모든 행을 능히 넓히고 모든 큰 서원을 원만케 하고 모든 마의 업에서 뛰어나고 모든 선지식을 섬기고 모든 보살의 도를 청정히 하고 보현의 모든 행을 구족하였다."

미륵보살의 이 법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보리심을 발하여 한결같이 정진하면 한 생애(一生)에서 불도를 성취한다고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량겁을 수행하여 보살행을 완성하여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한 생애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법문이라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30면에

가로 1. 부처나 보살에게 음식물이나 꽃 따위를 바치는 일 5. 원망의 소리 7. 보리심을 일으켜 공덕을 세운다는 뜻 8.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함 9. <경덕전등록>의 준말 11.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자리 13.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언어로 기록한 것 14. 국가 15. 잠이 오거나 자고 싶은 느낌 16. 솔방울이 맺히는 나무 19. 비석, 탑 따위의 바닥이 되는 단을 이루는 돌 21.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 23. 한 집 한 집 24. 높고 큰 벼슬 자리, 또는 그 벼슬아치 26.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 27.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세로 1. 지구 대기의 하층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무색 · 투명한 기체 2. 양심에 걸리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사실을 말하는 것 3. 직지사에서 건립한 국내 최대의 전각 4. 속기로 적은 내용을 보통 글자로 옮겨 적은 기록 5. 원만하게 이루어짐 6. 생물이 자라남 10.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게 만든 기구 13. 녹음하는 기계 17. 나무의 가지 18. 힘차고 씩씩하게 뻗어 나아감 20. 한 가지 계통의 학부로만 구성된 대학 21.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스님 22.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는 공식적인 말 또는 문서 23. 남에게 손해를 끼침 25. 남을 업신여겨 홀대해서 이르는 말.